



비행훈련원 확장

제주도 대한항공에 승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후 첫 사업으로 대한항공 제주비행훈련원 확장 사업 시행이 승인됐다고 제주도 당국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2조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조항에 따라 제주도 지사로부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산 87-1 일대 97만9,467㎡에 대한 제주비행훈련원 확장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3월부터 96년말까지 모두 2백22억원을 들여 비행장 시설을 확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길이 9백m, 폭 25m인 활주로를 길이 2km, 폭 45m로 대폭 확장하고 유도로(길이 2백50m, 폭 23m)와 계류장을 건설하게되며, 2단계 사업으로 오는 96년부터 97년까지 격납고, 훈련원, 기숙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비행훈련원 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훈련 항공기 운항계획에 맞춰 경비행기를 하루 80회 운항할 방침이다.

포항-울릉간 운항 재개

**삼성항공, 11인승 헬기로
관광용 4,5월께 취항**

포항-울릉간 항로에 오는 45월께 11인승 헬기가 재운항될 전망이다.

2월 23일 울릉군에 따르면 삼성항공이 최근 울릉군을 방문, 포항-울릉간 헬기 운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데 이어 오는 4월 또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11인승 헬기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항공측은 올해는 11인승을 운항하고 오는 96년 10월부터 23인승 헬기를 운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항공측은 포항공항을 헬리포트(헬기장)로 입차 사용하고 울릉도는 이미 개설돼 있는 우주항공의 헬리포트를 입차 사용하거나 이를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명간 건설교통부에 운항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릉도의 헬기 운항은 지난 89년 7월 포항 우주항공이 영덕 삼사 해상공원-울릉간에 22인승 헬기를 첫 운항시켰으나 운항 2일 만에 울릉도 근해에 추락, 탑승

객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운항이 중단돼왔다.

고졸 항공정비사 양성

아시아나, 2년제로 시작

아시아나 항공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항공정비사를 육성하는 사내 정비 직업훈련원을 설립하고 노동부로부터 노동부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2월 18일 필기시험을 거쳐 3월 13일 강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업훈련생 30명을 선발, 2년 과정으로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훈련원생은 자사의 항공 정비사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전액은 아시아나측에서 부담한다.

아시아나 창립 7주년

2월 17일, 기념식거행

**주당 130여회 운항
국제적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은 2월 17일로 창립 7주년을 맞았다.

지난 88년에 항공기 1대로 서

울-부산과 서울-광주 노선을 운항하면서 항공사업을 시작한 아시아나는 8년만에 항공기 33대를 갖추고 국내 17개 노선을 하루에 70여회, 해외 27개 노선을 주당 1백30여회 운항하는 국제적인 항공사로 성장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14일까지 국내선 2천3백95만2천여명, 국제선 5백51만3천명 등 모두 2천9백47만여명의 승객을 유치, 취항 첫해보다 국내선은 3배 이상, 국제선은 8배 이상 양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전노선 기내금연'과 같은 '클린 아시아나 운동'과 'Z.C(Zero Complains)운동', 핸드캡 시트 등 장애인 및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등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는 올 연말까지 B747-400 화물기 등 6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일본의 마쓰야마, 호주의 시드니, 미국의 시애틀과 팜 등지에 취항, 일류 항공사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베트남 국내선 진출 서울항공, 컴퓨터운항

서울항공이 국내 최초로 컴퓨터운항사업으로 해외에 진출

했다.

1월 20일 호치민에서 운항을 개시한 서울항공은 우선 제트스트림 21(19인승) 1대와 제트스트림 41(29인승) 1대를 투입, 베트남의 제2민항인 베트남에어서비스(VASCO)사와 제휴하여 하노이, 달랏, 푸콧등지에 전세비행을 시작했다.

양 항공사는 3월중 J-31 1대와 ATP 2대를 추가로 도입, 본격적인 운송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형기 13대 도입추진

KAL, 아시아나 양사서
국제선 확장 계획따라

정부가 올해 멕시코등 7개국 9개 노선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발맞춰 항공사들도 신규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항공수송력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일본등의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멕시코, 러시아, 벨기에, 이스라엘과 신규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신규취항에 나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잉사와 맥도넬 더글러스사, 포커사 등으로부터 여객기와 화물기등 올해 모두 13대의 항공기를 도입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4백18석 규모의 보잉747-400 4대와 MD82 2대(1백64석 규모), F100 2대(1백9명 규모) 등 8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잉767-300 2대(2백90석 규모)를 비롯 B737-300 1대(1백68석 규모), B737-400 1대와 화물기인 B747-400 1대등 모두 5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MD-11 결함조사 지시

FAA 정기점검중

파일런부분 균열 발견

美 연방항공국(FAA)은 맥도넬 더글러스사의 MD-11 여객기에서 엔진을 날개에 연결해주는 파일런 부분의 균열 여부를 조사하라고 전세계의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연방항공국은 아메리칸 항공이 정기점검중 파일런 부분의 균열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뒤 이같은 통보를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문제의 파일런이 일본의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新明和工業에서 제작한 제품이라고 전하면서 연방항공국은 이런 균열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항공국은 현재 취항하고 있는 3백석의 MD-11기 1백30대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이 항공기들을 지상에 계류해야할 만큼 파일런의 균열상태를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北京-백두산 노선 추진 太一정밀, 中國국내선 운항권 따내

컴퓨터기기 제조업체인 太一정밀이 중국 北京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중국 국내선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중이라고 중국에서 보도되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중국 국내선 항공운항권을 따내 작년 8월 중국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吉林夏華항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8인승 헬기 2대로 吉林-백두산간 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취항해왔다고 말했다.

태일정밀은 지난해 중국정부로부터 받은 항공운항권에 중국 국내선 항로를 새로 개설할 권리가 포함돼있어 北京-백두산간 노선 및 중국내 산업도시를 연결하는 화물전용 노선의 개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北京-吉林-백두산 항로의 개설을 위해 전담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中國, 항공운수 통제강화 운송지연·취소줄이려

中國民用航空局은 앞으로 항공교통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민용항공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새 노선은 민용항공국의 직접통제를 받게되며 기존의 운항노선은 이같은 강화조치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되면서 보안강화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민용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민용항공국이 운항 지연 및 취소를 줄이기 위해 중국내 30개 지역 및 국내항공사의 서비스를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비행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회사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은 약 4천만명을 넘어서 93년도 수준보다 19% 늘어났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화물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오는 6월 이후에는 새 항공운송회사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濠洲칸타스항공에 관심 투자관련인기 고조

지분75% 매각에 외국인
투자가 4배 초과신청가능

濠洲 칸타스 항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이들 투자자에 대한 주식 할당분을 4배 가량 초과하는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호주는 올해 중반에 칸타스 항공의 지분 75%를 매각, 최소한 20억호주달러(미화 15억달러)의 자금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10%를 할당했다.

포터 워버그사의 중역인 릭 볼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청이 3-4배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호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브리티시 항공(영)의 지분 25%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의 수요는 칸타스 주식의 30%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년만에 첫 흑자 예상

작년 승객 8%늘어나

정기항공 경영호전

IATA 순익10억달러 전망

지난 94년 한해 동안 국제선 항공을 이용한 승객과 화물운송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항공사들이 89년 이래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월 14일 발표했다.

IATA는 94년의 국제선 정기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전년보다 8% 늘어나 수송력증가를 3%포인트 앞질렀으며 화물운송량은 1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IATA 가맹 2백29개 회원사의 총이익은 오는 4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나 IATA의 윌리엄 가일러드 홍보담당 이사는 가맹사의 총 순이익이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ATA 가맹사의 총매출액 1천70억달러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IATA 가맹 항공사들은 지난 89년 이래 국제선 정기노선의 순이익을 올리지 못해왔으며 경기침체와 걸프전에 따른 항공여행감소로 적자를 본 90~93년의 손실 총액은 1백56억달러에 달했다.

가일러드이사는 경기상승과 적자 항공사들의 비용절감식 경

영구조 개편 등 두 가지 요소가 조화돼 항공사들이 적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성장의 추진력이라고 지적했다.

IATA는 오는 2010년 무렵에는 亞太지역이 세계 승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유럽지역의 교통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어 뉴질랜드 보잉737기 2/17부터 10대 운항중단

엔진에 이상발견

터빈날개 교체작업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2월 17일 자사 보유 보잉737기 13대 중 10대의 엔진에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 비행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뉴질랜드 민간항공 당국과 에어 뉴질랜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엔진 방음장치를 재장착하기 위해 분해한 엔진 터빈날개에 안전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들 보잉737기의 터빈날개가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 뉴질랜드 웰링턴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보잉737기에 방음

장치를 재부착했다.

이 성명은 또 터빈날개 교체작업이 6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터빈날개가 교체된 비행기는 곧바로 운항에 재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 뉴질랜드는 보잉 737기를 국내선 운항에만 취항시키고 있다.

美캐나다

새 항공운수협정 체결

두나라 어느 지점간

화물기 운항권한

미국과 캐나다는 2월 24일 양국간의 항공기 운송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항공운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캐나다와 미국간의 여객기 및 화물기 운항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항공요금의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 협정으로 캐나다 항공사들은 당장 두나라 도시간을 원하는 횟수만큼 여객기를 취항시킬 수 있으며 미항공사들도 토론토, 몬트리올 및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각 도시와 미국 도시간에 원하는 횟수만큼 여객기를 취항시킬 수 있게된다. 몬트리올과 밴쿠버의 경우엔 2년에 걸쳐, 토론토의 경우엔 3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이 규정이 도입된다.

새 협정은 또 양국 항공사들이 두나라의 어느 지점간에도 화물 전용기를 운항시킬 권한이 있으며 미국항공사들의 화물전용기 운항의 경우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서는 1년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도 규정했다.

양국 항공사들은 운송료를 시장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요금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당국이 합의할 경우에 한해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 협정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항공사들은 양국의 어느 지점간에도 전세기를 계속 운항할 수 있으나 양국중의 한 나라안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여행하는 국내여객을 타국 여객기가 수송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타이항공 항공기-엔진 종류 대폭 줄여

타이항공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엔진의 종류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2월 24일 밝혔다.

타이항공은 현재 15가지 종류의 항공기와 12종류의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2월 23일 열린 이

사회에서 항공기 및 엔진 종류를 모두 5가지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타이항공은 이날 발표문에서 "지금처럼 여러 종류의 항공기와 엔진을 갖고 있을 경우의 문제점은 여분의 부속품과 인력관리 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상 많은 경비를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는 DC10기와 BAe146기를 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방콕 포스트가 보도했다.

한편 타이항공 이사회는 1억1천5백만달러에 A330-300 에어버스 기종을 다섯번째로 구입키로 결정했다.

관서공항 2기공사 착수

Dayunsheng 7차기간중 활주로증설

일본운수성은 96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공항정비 5개년계획기간중에 간사이(關西)國際空港의 활주로 증설과 중부신국제공항의 건설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월 20일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국제항공수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각국에서 대규모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일본의 허브공항의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본이 세계의 항공네트워크에서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

단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운수성은 오는 3월하순경 항공심의회(운수상의 자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다음 제7차 공항정비 5개년계획을 추진해갈 계획인데 이로써 그간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을 병행하여 추진해온 일본의 공항정비정책은 이제 허브공항으로 중점을 전환하게 된다.

작년 9월에 개항한 간사이 국제공항의 당초구상은 현재 3,500미터짜리 활주로가 1개 있는 것을 3개로 늘릴 계획이었다.

또 중부신국제공항은 나고야 난쪽방향 약 30km지점에 위치한 이세 앞바다에 건설하는 4천미터짜리 2개의 활주로를 갖는 신공항을 말한다.

이들 2개의 공항증설과 신설 계획은 현재 제6차공항정비 5개년계획에선 어디까지나 '조사를 진행한다'로만 되어 있었던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 이상 구독을 원하는 분은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761-1104 FAX: 761-1175)